

##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을 위한 책”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이 땅에 태어나서' 독후감 대회 시상식에서 인사말 하는 모습.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20주기(3월 21일) 추모 독후감 대회 시상식이 3월 17일(수)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독후감 대회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적 그룹인 '현대'를 일궈낸 아산 정주영 설립자의 도전정신이 담긴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를 통해 진로와 취업, 창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날 시상식은 심사위원인 이경자 소설가의 심사보고에 이어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주요 수상자의 수상 소감 순서로 진행됐다. 시상은 중·고등학생 부문과 대학생·대학원생, 일반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대상을 수상한 홍성준 군(18·민족사관고)을 포함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수상자 등 49명에게 총 1억1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경자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에서 “수상 작품은 수상의 영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응모작을 쓰는 동안 자신에게 스스로 영예를 안긴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나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이번 대회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국내외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았던 이번 대회에는 총 6,372건의 독후감이 접수됐으며, 중·고등학생 부문 1,619건, 대학생·대학원생 및 일반부문 4,753건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아산재단에서는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소설가, 문학평론가, 시인,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1·2차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홍성준 군은 '지도자의 품격'을 주제로 최선을 다하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주영 설립자의 도전정신과 리더십, 기업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아버님은 확고한 신념 위에 최선을 다한 노력만 보탠다면 성공의 기회는 누구나 공평하게 타고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자서전을 내셨다”며 “이번 독후감 대회를 계기로 젊은이들이 과거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면 좋겠다.”고 독후감 대회의 의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더프레임 스튜디오